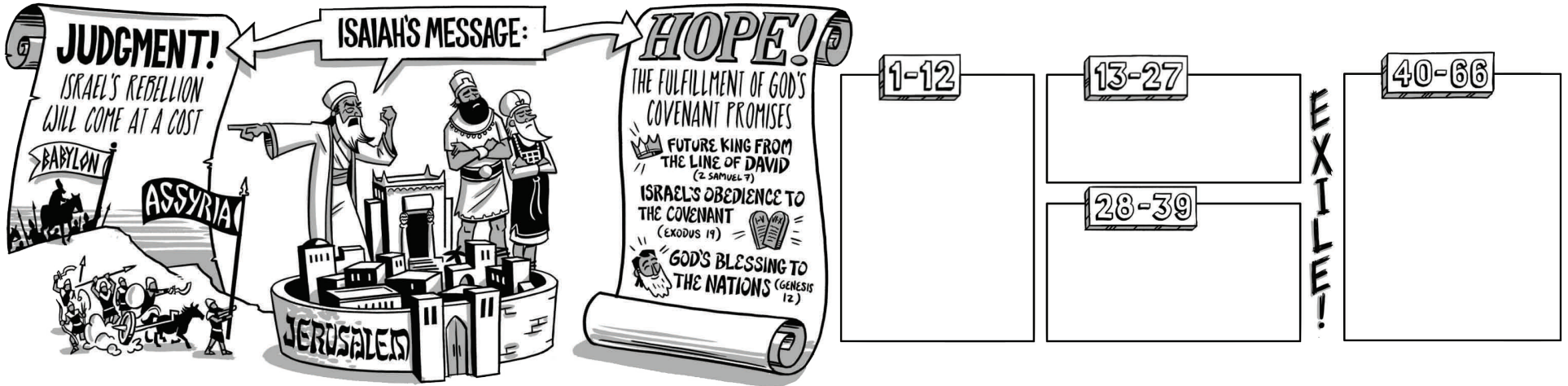


# 이사야 Isaiah

## ISAIAH



### 1. 이사야서 개요과 전체 구성

선지자 이사야의 책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살았고,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후반기에,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에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며,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거대 제국들을 사용하셔서, 앗수르와 뒤 이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전해집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들을 언젠가 반드시 이루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왕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고 (삼하 7 장), 그는 이스라엘이 시나이산에서 받은 계명을(출 19장) 모두 지키도록 이스라엘을 순종으로 이끌 것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넘쳐 흘러서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을 믿었습니다.

이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이사야는 그가 살았던 시대를 쳐서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와 우상 숭배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은 문학적으로 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제대로 잘 맞춰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포로기 전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1~39장은 크게 세 섹션으로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사야의 경고가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39 장의 종국을 향해 가는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게 그 결말입니다. 그러나 1~39장에도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 모두 다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40~66장은 그 소망의 약속을 다루고, 그것을 더 발전시킵니다.



이번에는 1~39장까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2. 이사야의 환상과 반복되는 주제 소개

처음 부분은 이사야가 본 심판의 환상(vision, 1~12장)과 예루살렘을 위한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언약을 거스른 것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1:50).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마치 정결케 하는 불 같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고, 거기에는 남은 자들,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우주적인 평화와 화합의 시대가 이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예루살렘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전개입니다. 즉, 정결케 하는 심판을 통해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책 전반에 걸쳐 이 주제는 반복되고 점점 더 이에 대한 자세한 묘사들로 가득차게 됩니다.

## 3. 이사야의 성전 환상과 의미

이 섹션의 중심이 되는 6장에서는 이사야가 어마어마한 환상을 봅니다. 성전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천상의 존재(스랍, 천사)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갑자기 자신과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불타는 숲의 모양으로 다가와 그를

태웁니다. 그러나 그는 소멸되는 대신, 오히려 그의 죄에서 정결케 됩니다. 이사야가 이 이상한 경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임무를 주십니다.

그는 계속해서 곧 다가올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기에, 그가 경고할수록 되려 역효과를 내어 백성들의 마음이 강박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잘려서 토막난 나무처럼 될 것이고, 들판에 그루터기처럼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 그루터기마저도 뜨거운 별에 마르고 불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타는(심판) 뒤에, 하나님은 그 그을린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희망의 표시입니다.



#### 4. 그루터기, 거룩한 씨의 의미

그렇다면 누가, 무엇이 과연 거룩한 씨일까요? 이 섹션의 나머지 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다윗의 후손, 예루살렘의 왕 아하스를 만나 아하스의 몰락을 예언합니다(7~12장). 하나님은 앓수르 제국이 먼저 이스라엘을 찍어 넘어뜨리고 그 땅을 황폐케 할 것이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새 왕을 보내실 것입니다 (7장).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악하고 억압하는 제국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오실 왕을 작은 새 순으로 묘사하는데, 다윗 왕가의 그루터기에서 돌아날 것입니다.



바로 이 왕이 6장에서 말한 '거룩한 씨'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이 메시아 왕을 우러르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모든 피조물을 변화시키며 (transform)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첫 섹션을 마치며 1~12장을 통해, 이사야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과연 이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사야는 또 다른 제국의 융성을 봅니다. 앓수르를 이어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 제국 역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고 이번엔 실제로 멸망시키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 책의 다음 부분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 5. 모든 열방의 심판과 소망

이 섹션은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민족들의 소망에 대한 많은 시들을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이사야가 보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바벨론의 멸망이고 이스라엘 주변 이웃들의

멸망입니다. 현재의 대단한 세력이 어느 날엔가 훨씬 더 파괴적이고 방자한 바벨론 제국으로 대치 되고, 바벨론의 왕들은 그들이 어떤 신들보다 높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코 교만한 바벨론을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거명하며, 같은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교만과

### 13-27 JUDGMENT & HOPE FOR THE NATIONS



불의로 인해, 그들 역시 망할 것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나 주변 다른 민족들에게나, 결코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 6. 두 도성 이야기

이 부분에서는 일련의 시들을 통해 두 도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24-27장). 자고(自高)한 세상의 도성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며 타락하고 불의한 곳으로, 거역하는 인류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이

도성을 묘사하는 용어들은 이미 이사야가 앞서 사용했던 것들로(4~23장), 예루살렘과 앗수르, 바벨론 이 모두를 합친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 도시는 결국 파멸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새 예루살렘이 이 도시를 대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셔서, 모든 민족들에서 나온 구원받은 인류를 다스리시고, 거기에는 더 이상과 죽음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이 장들이 이사야 1~39장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하며, 그의 메시지가 자신의 시대를 넘어 훨씬 더 멀리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메시지는 폭력으로 강제하는 모든 왕국들 위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심을 기다리고, 또한



의와 평화와 치유가 있는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예루살렘의 융성과 쇠망에 다시 초점을 맞춥니다(28장-39장).

### 7. 예루살렘의 융성과 쇠망

먼저 많은 시들을 통해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앗수르를 견제하여 군사적 보호를 받으려고 애굽으로 향하는 것을 고발합니다. 이사야는 이것이 역효과를 가져올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예화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36장-38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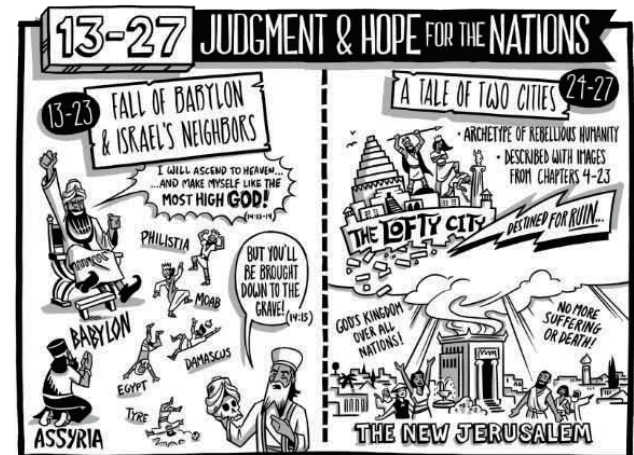
이사야의 예언대로,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할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그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룻밤 만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하지만, 히스기야는 성공한



후에 바로 넘어집니다. 그는 바벨론의 사절단을 환대하고, 자랑 삼아 예루살렘의 모든 보화와 성전과 궁전을 보여줍니다. 이는 분명히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한 노력입니다. 바벨론의 보호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에 맞서 예언하기를, 언젠가 이 동맹국 바벨론이 그를 배신하고 적이 되어 돌아와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4, 25 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사야의 말이 옳았습니다. 약 백 년 뒤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배반하고 쳐들어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데려 갑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1~39장까지 예언한 내용들이 바로 이 이야기로 모아진 것입니다.

이사야가 진정한 예언자인 것은, 그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씨, 즉 메시아의 나라가 모든 민족들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고, 이 책의 뒷 부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사야 1~39 장의 내용입니다.



EXILE!